

여자골프 4총사 금메달 사냥 나선다

■ 2020 도쿄올림픽
4일 디펜딩 챔프 한국 드림팀
박인비·김세영·고진영·김효주
타이를 방어전 2연패 도전



도쿄올림픽 여자 골프 경기를 하루 앞둔 3일 김세영, 고진영, 김효주(왼쪽부터)가 일본 가스미가세키 컨트리클럽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자랑하는 여자 골프 4총사가 드디어 2020 도쿄올림픽 필드에 선다. 박인비(33), 김세영(28), 고진영(26), 김효주(26)로 이뤄진 한국 여자골프 선수단은 4일 오전 7시 30분 일본 사이타마현 가스미가세키 컨트리클럽에서 대회 2연패를 향한 도전을 시작한다.

세계 최고의 무대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를 호령하는 선수들이 만큼 대한민국 선수단이 4총사에게 거는 기대가 각별하다. 금메달을 장담할 수 있는 마지막 종목이어서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7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 순위 10위 내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일 현재 한국 선수단의 금메달은 양궁 4개,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1

개, 체조 1개를 합쳐 6개. 목표 달성 직전이라 압도적인 여자골프에 금메달을 희망한다.

박인비(세계랭킹 3위)는 여자골프가 올림픽에서 116년 만에 열린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지카 바이러스(모기를 매개로 태아의 소두증을 유발)가 유행하던 리우 대회는 물론 코로나19가 확산한 이번 대회에도 태극마크를 달고 싶다는 뜻을 누누이 밝혀왔고, 2회 연속

태극기를 시상대 가장 높은 울리겠다는 각오로 1라운드를 준비한다.

고진영(2위), 김세영(4위), 김효주(6위)가 '디펜딩 챔피언' 박인비와 드림팀을 이뤄 한국의 타이틀 방어에 힘을 보탠다. 연합뉴스

운명의 야구 한일전 '필승'

4일 김경문호 준결승전 나서
투지·기세·팀워크로 승리 다짐

2020 도쿄올림픽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야구 한일전이 4일 오후 7시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결승 진출 티켓이 걸린 운명의 한판이 두 팀을 기다린다. 이 경기에서 쳐도 변형 패자부활전 방식 덕분에 결승에 오를 두 번째 찬스는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을, 일본은 한국을 넘어설지 못하고선 금메달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 결승에서 다시 '역선택'한 일본을 또 제압할 준결승전의 승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한국은 2008 베이징 대회 때 풀리 그에서 일본을 물리쳐 자신감을 얻었고, 4강에 선착한 한국을 쉬운 상대로 여겨 오히려 '역선택'한 일본을 또 제압할 준결승전의 승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한국, 일본 모두 기세가 좋다. 한국은 1일 녹아웃 스테이지 1차전에서 도미니카공화국에 1-3으로 끌려가다가 9회말 박해민(삼성 라이온즈), 이정후(키움 히어로즈), 김현수

(LG 트윈스)의 거짓말 같은 적시타 3방에 힘입어 4-3으로 끝내기 역전승을 거뒀다.

타력받은 대표팀은 2일엔 이스라엘을 11-1, 7회 콜드게임으로 제압하고 승자 준결승전에 선착했다.

일본도 2일 가이 다쿠야의 굿바이 안타를 앞세워 미국을 연장 10회에 7-6으로 따돌리고 이번 대회 3연승을 달리고 준결승에 합류했다.

5-6으로 끌려가던 9회말 극적으로 경기를 원점으로 돌리고, 연장 10회에 전세를 뒤집어 한국처럼 상상을 했다.

세대교체와 물갈이를 병행해 한층 젊어진 한국 야구는 투지, 베풀 끝에서 살아남 기세로, 그리고 1987년 동경들이 이끄는 끈끈한 팀워크로 일본전 승리를 다짐한다.

승자 준결승에서 패한 팀은 패자부활전에서 올라온 팀과 두 번째 준결승을 치른다. 한국은 일본을 제치면 결승전만 남겨둔다. 패하면, 준결승과 결승 또는 동메달 결정전 2경기만 더 치르고 대회를 마친다.

상징성이 큰 구기 종목이 이번 대회에서 일본을 연파했기에 이번엔 야구가 기운을 물려받을 차례다. 연합뉴스



우하람 한국 다이빙 '역대 최고 성적'

스프링보드 결승 4위 올라

'한국 다이빙의 간판' 우하람(23·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아쉽게 올림픽 첫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으나 역대 최고 성적을 일궜다.

우하람은 3일 오후 일본 도쿄 아쿠아티크 센터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다이빙 남자 3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6차 시기 합계 481.85점을 받아 12명 선수 중 4위를 차지했다.

4위는 우하람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남자 10m 플랫폼에서 기록한 11위를 넘어 한국 다이빙의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이다.

한국 다이빙은 1960년 로마 대회부터 올림픽에 출전했지만, 아직 메달을 딴 선수는 없다.

전날 예선에서 합계 452.45점으로 29명 중 5위를 차지한 우하람은 이날 오전 18명이 겨룬 준결승에서는 403.15점을 받아 12위로 아슬아슬하게 결승에 올랐다. 한국 다이빙 선수가 예선을 거쳐 올림픽 결승까지 뚫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였다.

우하람은 이날 앞으로 서서 앞으로 두 바퀴 반 돌고 옆으로 두 바퀴 트위스트 하는 동작의 1차 시기에서 76.50점을 받아 공동 5위로 시작했다.

2차 시기에서도 뒤로 서서 앞으로 완전히 구부린 자세로 세 바퀴 반을 도는 동작으로 81.60점을 받으며 5위를 유지한 채 메달 경쟁을 이어갔다.

3차 시기에서는 4위로 올라섰다. 3위 잭 로어(영국)와는 3.05점 차였다. 4차 시기에서 82.25점으로 4위를 지켰으나 로어를 1.80점 차로 추격했다. 우하람은 이번 대회 예선과 준결승 5차 시기에서는 난도 3.0의 동작을 수행했다.

결승에서는 뒤로 서서 뒤로 완전히 구부린 자세로 세 바퀴 반을 도는 난도 3.6의 동작으로 바퀴 승부수를 띄웠다. 하지만 입수 동작에서 흔들려 68.40점을 얻는 데 그쳤다.

우하람은 앞으로 서서 앞으로 두 바퀴 반 돌고 옆으로 세 바퀴 트위스트 하는 난도 3.9의 동작을 선보인 마지막 6차 시기에서 81.90점을 받고는 결국 4위로 경기를 마쳤다. 연합뉴스



동아대 재학생인 김재혁



한화 이글스 소속 임종찬

제주출신 김재혁·임종찬 야구 국가대표 발탁

WBSC U-23 야구 월드컵

제주특별자치도야구소프트볼협회는 제주출신 김재혁(동아대 4), 임종찬(한화 이글스)이 '제3회 WBSC U-23 야구 월드컵'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발탁됐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국가대표로 발탁된 총 24명(프로야구 15명, 대학 야구 9명) 중 외야수 5명에 포함됐다.

김재혁은 제주남초에서 야구를 시작해 제주제일중, 제주고를 거쳐 동아대 4학년에서 재학중이며, 각종 대회

에서 도루상을 차지했다. 현재 타율 0.471을 기록 중이다.

임종찬은 신광초에서 야구를 시작해 청주우암초로 전학, 청주중학교, 북일고, 2020년도 2차 3라운드에서 지명을 받고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에서 활약하고 있다.

한편 제3회 WBSC U-23 야구 월드컵은 2년마다 열리는 대회로,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국 멕시코를 비롯해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 총 12개 팀이 참가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2020 도쿄올림픽 배구/핸드볼/농구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올림픽 투데이 7:30 여가는 도쿄 골프/탁구/육상 9:45 여가는 도쿄 골프/탁구/육상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6:5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20 2020 도쿄올림픽 골프/레슬링/육상 9:40 2020 도쿄올림픽 골프/레슬링/육상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05 JIBS 뉴스 7:20 SBS 도쿄올림픽 골프/탁구/여자배구/레슬링 9:30 SBS 도쿄올림픽 골프/탁구/여자배구/레슬링 11:30 SBS 도쿄올림픽 골프/탁구	8:00 뭉뚱뚱 유치원 8:45 한글공룡 아이야 9:40 우리집 유치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2:10 극한집단 14:10 EBS 다크프라이 15:15 클래식 e 16:00 마사와 꿈 16:30 뭉뚱뚱 유치원 17:45 역사놀이매 아리아리 19:50 다시 인생, 죽7에 꼭 한번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2:30 2020 도쿄올림픽 배구/핸드볼/농구 15:00 2020 도쿄올림픽 농구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20 2020 도쿄올림픽 핸드볼/농구	12:00 여가는 도쿄 골프/스케이팅보링 15:00 KBS 뉴스타임 15:10 여가는 도쿄 탁구/다이빙 17:30 여가는 도쿄 배구/야구/레슬링	12:00 MBC 뉴스 12:10 2020 도쿄올림픽 골프/탁구/사이클/다이빙 14:50 2020 도쿄올림픽 골프/탁구/사이클/다이빙 17:30 2020 도쿄올림픽 야구/사이클/레슬링/탁구	14:00 SBS 도쿄올림픽 골프/탁구 17:00 SBS 도쿄올림픽 야구/여자핸드볼/레슬링/육상	7:00 김태기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고대창가에 김석훈입니다 12:00 CBS 낮중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섬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김중대의 뉴스팀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원영의 가스펠 아워
19: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9:20 2020 도쿄올림픽 아이스틱 스쿠이밍/ 스프링클러라이프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조선포, 드림 더 비트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3:50 2020 도쿄올림픽 하이라이트	19:45 여가는 도쿄 배구/야구/레슬링 22:00 펜션 집터 스페셜 22:40 프리부드 23:50 스튜디오 K	19:45 2020 도쿄올림픽 야구/사이클/레슬링/탁구 22:00 MBC 뉴스데스크 22:40 미치지 않고서야 스페셜 물아보지 않고서야	19:30 SBS 도쿄올림픽 야구/여자핸드볼/ 레슬링/육상 22:00 SBS 8 뉴스 22:15 JIBS 8 뉴스 22:30 백중원의 골목식당	8:00 로데오 히트 더 로드 9:00 KCTV 뉴스 9:30 AI X 글로벌 아카데미 10:30 열린TV광상 13:10 KCTV 다중스페셜 14:00 로데오 히트 더 로드 15:10 AI X 글로벌 아카데미 16:00 제주도농업기술원영농교육 18:30 KCTV 다중스페셜 19:00 KCTV 뉴스 20:00 AI X 글로벌 아카데미 20:50 UHD 제주산책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 KBS ☎ 064-740-7331 / ☎ MBC ☎ 064-740-2432 / ☎ JIBS ☎ 064-740-7800 / ☎ KCTV ☎ 064-741-7723 /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4일

김중상 지단(한민)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곡동 교수(010-5233-6136)

36년 자녀에 관한 소식이냐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집에 초대해도 원만하다. 48년 마음 조절이 때론 필요하다. 가족간 불화나 성격차이로 갈등. 60년 직장이나 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지연. 72년 강함이 부드러움에 패하는 격. 부부애정 흥. 84년 친구나 동료의 도움이 크다. 대인관계에 힘을 쏟라.

37년 여기저기서 듣는 이가 많으니 일은 성사되고 질병은 회복. 49년 명예 또는 갑부 쓸 일이 생기거나 리더자로 인정받는다. 61년 슬픔 뒤에는 기쁨이 온다. 좋은 소식이 찾아온다. 73년 취업, 직장소식을 접하거나 이성교제 길. 85년 어려우면 도움을 청하라. 내 뜻이 성사되고 이뤄진다.

38년 모음이 있으면 참석, 다만 술은 주량만큼만. 50년 돈문제로 신경이 예민해진다. 가정불화 우려, 조울한 추진이 필요. 62년 자식 문제가 발생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교통사고 주의. 74년 밝은 표정으로 상사를 대하면 좋은 기운이 오고 사랑을 받는다. 86년 의견다툼이 있다. 변명보다는 수용의 자세 필요.

39년 자녀문제는 자신들이 해결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속 태우지마라. 51년 각종 인허가 계약에 관계된 일은 순탄하다. 63년 내 아이디어가 인정을 받거나 계획하는 일이 발전이 있게 된다. 75년 능력을 인정받게 되니 기쁘나 호사다마 있으니 주의. 87년 부모님의 걱정이 있으나, 긍정사고로 좋은 결과를 만든다.

40년 몸과 마음이 허전하다. 친구나 취미동호회 필요. 52년 덕을 쌓는 지혜가 필요. 봉사할 일이 생긴다. 64년 생각은 많아 결정하는데 망설인다. 신속한 결정이 인정받는다. 76년 신용함과 여유를 가져야 손해가 적으니 급할수록 돌아가라. 88년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안타깝다. 밖으로 활동하면 이익 있다.

41년 체면과 명예에 얽매어 실익을 미약하다. 53년 재물이 있지만 투기는 신중해야 한다. 65년 영업이나 생산에 활력이 생기고 결과가 함께 하니 분수함이 오히려 즐겁다. 77년 선택의 갈등이 있다. 안전사고 조심. 89년 자신감이 있어도 자만함을 나를 조라하게 만드니 자만을 자제할 것.

42년 외출이나 모임에 참석할 일이 생긴다. 54년 동료나 거래처의 도움은 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66년 돈 문제로 불화가 오거나 직장 이동수가 있다. 78년 직장이나 조직생활자는 불만이 많아진다. 내 눈높이를 낮추고 겸손하라. 90년 휴식이 필요하고 외출은 부적절하다.

43년 친구나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면 좋다. 55년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하는 법. 변통은 자제하고 신중해야. 67년 나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거나 서두르면 더 큰 화가 된다. 79년 취업이나 영업성고가 나타나고, 새로운 이성이 나타난다. 91년 결단과 용기가 동시에 필요하다. 실천하라.

44년 무리수가 오니 확장이나 이전은 보류하라. 56년 아랫사람이나 자식의 문제로 할 일이 많아지고 바쁘다. 68년 소망하는 일이 되려다 방해자가 생기니 조심. 80년 친구들과 이성 상관계가 심하. 무리수를 두지 마라. 시간이 해결. 92년 성과가 작아도 한 만큼 이익이라는 긍정적 마인드가 필요.

45년 주변 오는 것이 있으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온다. 57년 뒷사람의 도움으로 문제 해결.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라. 69년 직장이나 하면 일에서 잠시 휴식을 갖자. 81년 돈의 문제가 발생하니 도난 주의. 돈 거래하지 마라. 93년 형제 또는 동료의 도움 협조가 필요하다.

46년 충동적인 생각이 일을 망치니 신중한 생각보다는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 58년 음주 또는 밤 늦게 귀가하면 불리하다. 운전은 자제. 70년 일의 성사 어렵고, 이성교제가 있어도 내 맘을 채워주지 못한다. 82년 새로움을 추구하거나 무언가 갈망하는 하루가 된다. 94년 친구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있겠다.

47년 돈이 안되면서도 육체적으로는 고집된다. 59년 직장문제 지연. 자녀로 인한 고민이 가득. 전문가와 상의. 71년 영업이 다소 호전되나 부지런함이 최고이다. 승진 또는 행운이 있다. 83년 당장 힘들다고 행동하는 것보다 인내 필요. 95년 의견이 맞지 않거나 주변사람과 논쟁한다.